

## 유아 국악장단 수업 모형의 개발 및 효과 연구

-Orff의 청음중심 단계적 지도법을 중심으로-

Application of the Orff Approach to Ear Training for Traditional  
Korean Rhythmic Patterns Education in Kindergarten

성 용 혜\*  
Sung, Yong Hye  
문 미 옥\*\*  
Moon, Mi Ok

### Abstract

A model for teaching traditional Korean rhythmic patterns using Orff's ear training approach was developed and implemented with aim that it could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operation of Korean music education. Children's rhythmic sense improved through teaching of sound searching, body rhythm, playing instruments, and improvising.

Teaching the order of connective rhythmic patterns and a basic patterns-centered approach was more effective than teaching modified rhythmic patterns. With ear training, children perceived the stress of rhythmic patterns in advance and they perceived the length of sound. These results show that this model can be used as a basic approach in the operation of Korean music education.

**Key Words** : 국악 장단 수업모형(teaching model of Korean rhythmic patterns), 리듬감(rhythmic sense), 청음중심 지도법(ear-training approach)

---

\* 접수 2003년 6월 30일, 채택 2003년 7월 20일

\* 교신저자 : 서울여자대학교 부속유치원 교사, E-mail : choco-sung@hanmail.net

\*\* 서울여자대학교 인간개발학부 교수

## I. 서론

유아기는 음악적 능력을 형성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시기로 음악 감수성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는 시기이다. 초기 음악 경험을 통하여 유아는 지적·신체적·언어적 발달을 쉽게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음악 활동의 대부분이 유아기에 시작되어야 하며, 유아기의 풍부한 음악적 경험은 일생동안의 음악적 삶에 필요한 자양분이 된다(안재신, 1996). 따라서, 유아 음악교육은 음악적 기능에 주력하기보다는 인성형성의 밑받침이 되는 전인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과거 오랜 기간 동안의 음악교육은 유아의 전인발달에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단편적인 음악지식이나 가창, 독보 능력만을 교육시키는데 보다 관심을 두었으며, 유아의 음악적 심성 계발이나 실생활에 음악을 체험시키지 못하였다. 이러한 과거 음악교육의 문제를 인식하고 유아의 전인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음악교육의 접근이 1960년대부터 활발히 시작되었고, 인간의 '심미감 계발'을 목표로 한 교육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음악적 심성' 계발을 강조한 학자들로는 달크로즈, 코다이, 오르프 등이 있다. 그들은 음악적 심미감 계발을 위해 청음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동시에 자국의 언어가 바탕이 된 민요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음악교육의 현실을 살펴보면, 우리의 언어 및 문화가 바탕이 된 음악교육의 실천이라는 점에서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이것은 개화기와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문화의 쇠퇴와 해방 이후 서구식 사고와 문물이 우월하다는 사상 팽배로 국악이 소외된 결과에 의한 것이다(유덕희, 1998). 이로 인해, 국악은 민족의 음악으로 의식되고 있으나, 생활 속에서 향유하는 뿌리 깊은 음악으로 자리 잡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당위성 외에도 인간의 청각각이 유아기에 최고로 발달하다가 9세 이후에는 그 발달이 정지된다(안재신, 1996)는 점을 고려할 때, 국악교육이 유아기에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어린 시기에 국악을 생활화하지 않은 사람이, 어른이 되어서야 국악을 듣게 된다면, 그 정서와 느낌을 이해하기 어려우며 음악적 편견으로 인해 멀리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것이므로 유아기부터 국악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각을 통해 최근 들어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유아기의 국악교육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제 6차 유치원 교육과정(교육부, 1998)에서도 우리나라의 전통과 다른 나라의 풍습에 관심을 가져 편견을 없애고 수용하는 태도와 고유의 풍습 및 민속놀이, 가락, 조형물에 친숙해지며, 우리말, 글에 자긍심을 갖도록 전래동화·동요를 즐겨듣게 하는 등 유아기 때부터 전통 문화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강경희, 1999).

또한 전통음악교육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연구들(김수연, 1994; 임수연, 1995; 임신화, 1995; 정미라, 1992)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교육 현장의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김수연(1995)은 전통음악에 대한 이해부족과 미비로 많은 유아들이 우리 음악을 접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시하고 있는 전통음악 교육 대부분이 전래동요를 지도하는 수준이고, 장단교육 프로그램은 물론 일정한 체계적 프로그램이 없는 상태의 유치원이 대부분임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실태 조사들을 통해 전통음악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자각이 이루어졌고, 유아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체계적인 방법이며 ‘유아의 음악적 기술 습득’과 ‘음악적 심성개발’이라는 두 가지 목적인 강조된 방법이라는 점에서 청음중심 단계적 지도법들이 논의되었다(이홍수, 1996).

이러한 청음중심 단계적 지도법에는 우리나라 전통의 구전심수 방법과 외국의 구수법들이 해당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통 청음중심 지도법인 ‘구전심수’의 방법은 음악을 전체로 경험할 수 있고, 분석적으로 학습할 수 있으며, 창조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도이론으로 체계화되지 못했으며 대부분 구전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정확한 체계를 밝힐 수 없다는 면이 문제점으로 인식되었다(이경연, 1994). 따라서 이에 문제의식을 느낀 교육학자들에 의해 외국의 지도법들을 전통음악 지도에 적용해 보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국악장단 교육에 있어서 자연적이고 비구조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을 표현하도록 격려하며, 음악을 놀이·악기·동작·대화의 종합적인 경험(김혜경, 1997, 재인용)이라고 한 Orff의 지도법은 큰 시사점을 주었다. 따라서 오르프의 지도법을 적용하여 국악 장단을 지도한 연구(김영희, 1998; 김인옥, 1997; 안신자, 1996; 임선영, 1996; 정성자, 1985)들이 이루어졌으며, 유아단계에 적합한 교수방법들을 제시한 연구들(김영신, 1996; 김상철, 1992)이 논의되고 있다.

이 중 안신자(1995)의 연구에 따르면 만 3세부터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전래 동요에 신체적 리듬 표현을 같이 하면 음악적 동기 유발과 흥미를 줄 수 있으며, 전통음악을 통한 리듬 교육은 창의적인 음악향상을 유출해 낼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유아의 심미적 체험을 목표로 가창,

연주, 창작, 감상들이 치우침 없이 다양하게 계획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Orff의 청음중심 단계적 지도법이 채택될 수 있겠다. 또한 음악의 요소에 반응하는 능력에 관한 Schultz(1969)의 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듯 모든 연령에서 남아보다 여아가 음악 요소 감지 능력에서 우수하다는 사실은 국악교육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성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유아기부터 이루어져야 하며 본 연구에서 성차를 규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음 중심 단계적 지도법을 통한 국악 장단 수업 모형을 개발함으로써 유아에게 적합한 전통음악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청음 중심 단계적 지도법을 통해 국악 장단에 대한 이해와 개념을 강조하고 유아의 음악발달을 도모함으로써 유아의 리듬감 향상의 효과를 밝히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유아의 음악 발달과 관련한 요인 중 성차를 규명함으로써 전통음악 지도에 있어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아전통음악교육의 활성화 방안 및 음악 교수의 체계적 방법을 제시하여 서양음악 중심 일변도의 음률교육을 보완하고 전통음악에 대한 이해 및 존중태도를 기르고자 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설정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청음 중심 단계적 지도법에 의한 유아 국악장단 수업모형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청음 중심 단계적 지도법에 의한 유아 국악장단 교육의 효과는 어떠한가?

2-1. 청음 중심 단계적 지도법에 의한 유아 국악장단 교육이 리듬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2-2. 리듬감 향상 수준에서 남아와 여아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청음중심 단계적 지도법에 의한 유아국악장단 수업모형에 대한 유아의 반응은 어떠한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유아 전통음악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서울 S부속 유치원 만 5세 2개 학급 64명(남아 32명, 여아 3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유아의 평균 연령은 실험집단의 유아는 67개월(만5년), 비교집단의 유아는 68개월(만5년)로 두 집단은 연령이 비슷한 동질 집단이며, <표 1>의 결과에서 보듯 두 집단은 리듬감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동질 집단이다.

<표 1> 연구 대상 유아의 리듬감 수준

영역	집 단 간 사전검사	N	M	SD	t	p
강약	실험집단	32	3.3125	0.3728	-0.383	0.703
	비교집단	32	3.3275	0.5536		
리듬	실험집단	32	2.0625	0.5644	0.349	0.729
	비교집단	32	2.0000	0.8424		
총점	실험집단	32	5.3750	0.9775	0.000	1.000
	비교집단	32	5.3750	0.8328		

\*p<.05

### 2. 연구 도구

본 연구를 위한 도구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여부와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

기 위한 음악적성검사(PMMA) 도구, 프로그램에 대한 유아의 반응을 분석하기 위한 비디오 녹화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다.

#### 1) 음악적성검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음악적 동질성 여부 및 국악교육의 효과 검증을 위해 고든(Edwin E. Gordon)의 초급 오디에이션 검사(Primary of Music Audiation)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5세에서 8세까지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아동의 발달적 음악 적성(developmental music aptitude)을 측정하기 위한 집단 검사이다. 이 검사에서는 악보를 읽는 능력이나 기보 능력은 필요하지 않으며 단지 음악적으로 작곡된 한 쌍의 멜로디를 듣고 리듬이 같은지 다른지를 구별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든의 음악적성검사 중 리듬감 형태에 관한 문항(강약 4문항, 리듬 4문항)만을 개별 테스트하였다. 연구를 위해 사용된 문항은 유아교육 전문가 5인의 안면타당도 검증을 거쳤다.

#### 2) 비디오 분석

본 연구는 실험집단에게만 청음중심 단계적 지도법에 의한 자진모리, 세마치, 굿거리 장단 교육을 2달간 실시하였다. 실험 집단의 모든 활동들을 비디오 테이프에 녹화하였으며, 비디오 카메라로 매시간 수업진행 과정을 촬영한 것을 근거로 각 단계별 유아들의 장단 습득에 대한

반응, 장단 연주 기술, 전통 음악에 대한 태도를 연구자와 보조 연구자가 함께 분석하였다.

### 3. 연구 절차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2001년 4월 2일부터 6월 22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유아의 음악적 발달, 음악 교육의 접근 방법, 음악 교육 철학, 전통음악 교육, 수업 모형 분석, 선행 연구 및 현장 적용 사례 분석을 통해 본 연구자가 개발한 수업 모형의 효과 검증을 위해 사전 검사 실시, 프로그램의 처치, 사후 검사의 실시 순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수업 모형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음악 적성 검사를 2001년 4월 16일부터 4월 20일에 걸쳐 1회 실시하였다. 음악적성검사는 집단의 분위기 및 주의력 분산으로 검사가 원만히 실시되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개별적으로 실시되었으며, 개인별 검사 실시 시간은 15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국악장단 교육은 사전 검사가 끝난 1주일 후에,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간 8주에 걸쳐 총 40회 실시되었다. 장소는 실험 집단 학급 교실이었으며, 실험 집단에게는 30분

정도의 국악장단 교육이 실시되었다. 시간은 유아들이 희망하는 경우에 따라 짧게, 더 길게도 실시되었다. 비교 집단에게는 일상적인 S 유치원의 교육 과정이 실행되었다.

사후 검사는 수업 모형에 대한 실험이 끝난 6월 18일에서 6월 22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사전 검사에서 사용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동일한 검사자가 사전 검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 4. 자료 수집 및 자료 분석

유아국악장단 수업의 효과를 살피기 위해 집단간 PMMA 사후 검사의 평균을 구한 후 t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SPSS 10.0 version을 사용하였으며, 유의 수준 .05로 선정하였다.

국악장단교육에 대한 유아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현장기록과 비디오 녹화를 통한 활동 분석을 하였다. 녹화 내용은 연구자와 보조연구자 1인이 분석하였으며, 유아의 장단에 대한 이해도, 장단 습득 및 표현, 국악에 대한 태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 Ⅲ. 연구 결과 및 해석

### 1. 청음중심 단계적 지도법에 의한 국악장단 수업모형 개발

#### 1) 교육 목적 및 목표

본 연구에서는 교육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Tyler(1969) 교육 목표 선정의 기본 원천을 따랐으며, 임수연(1995)의 연구와 교육

부의 표현 생활 영역 내용을 통해 요구를 사정하였다.

본 수업 모형은 국악교육 실태에 대한 선행 연구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교육 목적 및 목표를 설정하였다. 본 수업 모형에서는 청음중심 단계적 지도법에 의한 국악장단 교육을 통해 우리 음악의 특징 및 구조를 이해하며,

전통장단을 익히고 기본적인 연주 기술을 습득하며, 국악을 친숙하게 여기고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교육목적 및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음악의 특징 및 구조를 이해한다.

- 국악을 통해 우리 민족의 정서를 느낀다.
- 장단의 강박과 약박을 구별한다.
- 3분박을 이해한다.
- 메기고 받는 형식을 익힌다.

둘째, 전통 장단의 연주 및 재창조를 통해 표현력을 향상시킨다.

- 사물 악기의 명칭을 안다.
- 전통악기의 주법을 알고 연주할 수 있다.
- 장단을 신체로 표현할 수 있다.
- 장단에 맞추어 민요, 국악 동요를 부를 수 있다.
- 장단의 길이를 변별한다.
- 장단 연주 능력을 습득한다.
- 장단을 재구성하여 표현한다.

셋째, 우리 음악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다.

- 음악이 삶의 모습이며 발생한 시대 및 지역 사람들의 독특한 문화유산임을 이해한다.
- 음악적인 심성과 전통음악에 대한 친숙함을 갖는다.
- 전통음악에 관심을 가진다.

## 2) 교육 내용

본 수업 모형의 교육 내용은 Tyler(1969)의 교육 내용 선정의 원리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교육 내용 선정 및 조직 원리와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교육 내용 선정 및 조직

첫째, 교육 내용들이 수직적으로 반복되는

계속성의 원리에 따른다.

장단 지도과정에서 동기 유발과 흥미도를 고려하여 유아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청음 훈련을 통한 소리 탐색, 인체 리듬을 통한 장단 익히기, 사물 악기를 통한 악기 연주, 장단의 즉흥표현의 단계성을 통해 교육 내용을 선정하였다.

소리 탐색, 인체 리듬을 통한 장단 익히기, 악기연주, 즉흥표현이 반복 되도록 교육 내용을 조직한다.

둘째,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부분에서 전체로의 계열성 원리에 따라 장단 흐름의 전이도가 높고 연계성이 있는 장단 순으로 구성한다.

따라서 청음중심 단계적 지도법에 의한 유아 국악장단 수업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대표적 장단인 세마치, 굿거리, 자진모리 장단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장단의 지도 순서는 교육부(2000)의 연구에 기초하여 세마치, 굿거리, 자진모리 장단 순으로 정하였다. 교육 내용에 있어 가창, 기악, 창작 등의 표현 활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특히 장단 학습을 위해 Orff의 교육 내용을 수정하여 청음훈련, 인체리듬, 악기연주, 즉흥표현을 활용하였다.

세마치, 굿거리, 자진모리의 단계를 거쳐 지도하며, 빠르기를 변별하여 연주하기는 유아 단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중모리, 중중모리, 타령 장단 등은 제외하였다. 제재곡 역시 세마치, 굿거리, 자진모리로 연주할 수 있는 곡을 선정하였다.

또한 장단 지도과정에서 동기 유발과 흥미도를 고려하여 유아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소리 탐색, 인체 리듬을 통한 장단 익히기, 악기연주, 즉흥표현의 단계성을 통해 지도함으로써 전통 음악에 대한 멋과 아름다움을 갖도록 한다.

셋째, 학습경험을 통합시켜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통합적으로 이루자는 원리인 통합성의 원리에 따른다.

본 연구에서는 국악장단을 익히는 과정에서 유아들이 쉽게 접해보지 못한 전통악기 표현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 및 신선함, 표현의 즐거움을 느끼므로 표현 생활의 발달을 도모한다. 또한 장단을 익히고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표현 생활 영역을 발달시킬 뿐만 아니라, 활동에 대한 계획, 조직, 수행을 통해 성취감 및 자신감을 향상시키므로 사회 생활 영역이 발달된다. 또한 사물 악기 조작 및 연주법 익히기를 통해 대·소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으므로 건강 생활 영역의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소리의 특성을 이해하고 장단을 변별하는 과정을 통해 탐구 생활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전래 동요 및 국악동요 부르기 과정을 통해 언어의 아름다움과 운율을 느낄 수 있으므로 언어 생활 발달을 도모한다.

(2) 교육 내용

교육 내용은 Orff의 교육 내용, 정성자(1984)

〈표 2〉 청음중심 단계적 지도법에 의한 국악장단교육 내용

청음중심 단계적 지도법	유아국악 장단교육	교육 내용	활동 명
1단계 청음 훈련	청음훈련을 통한 소리 탐색 단계	1수준 : 소리와 소음 구분하기 2수준 : 소리의 특성 이해하기 여러 가지 소리 차이 비교하기 3수준 : 사물악기 음색 비교하기 서양악기, 동양악기 음색 비교하기 규칙적, 불규칙적 강세 느끼기 악곡의 형식 구별하기	여러 가지 물건 두드리기 북 만들기 진동실험 소리 녹음하기 소리가 보여요 소리 표상하기 (음색, 길이, 박자, 강약) 악기 소리에 맞추어 걷기 대금과 플룻, 가야금과 하프 소리비교하기 김덕수 장구 연주 감상하기
2단계 인체 리듬	인체리듬을 통한 장단익히기 단계	1수준 : 구음을 통한 장단 익히기 2수준 : 손뼉 치기를 통한 장단 익히기 3수준 : 발구르기를 통한 장단 익히기	말 장단 익히기 휘모리 장단 전래동요 부르기 (나무노래, 쥐야 쥐야) 자진모리 장단 전래동요 부르기 (사물놀이, 종달야 종달야) 세마치 장단 전래동요 부르기 (어린이 아리랑) 굿거리 장단 노래 부르기 (산도깨비) 손바닥, 발바닥 장단 그림 만들기 발장단 익히기 게임 생수통 장단치기
3단계 악기 연주	사물악기 통한 악기연주단계	1수준 : 악기 조작 및 타범 익히기 2수준 : 장단 익히기 및 독주하기 3수준 : 함께 연주하기	타범 노래 배우기(장구놀이) 노래 부르며 연주하기 함께 연주하기
4단계 즉흥연주	장단의 즉흥표현 단계	1수준 : 장단 듣고 표현하기 단계 2수준 : 장단 재구성하기 단계	구음 악보 만들기 악기 연주 발표하기

의 연구에 기초하여 연구자가 선정하였다.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유아교육 전공 교수 2명과 유아교사 3명에 의해 안면 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이상으로 살펴본 교육 내용 선정 원칙에 따라 소리 탐색하기, 인체리듬을 통한 장단 익히기, 사물악기를 통한 악기연주, 사물악기를 통한 장단의 즉흥 연주를 교육 내용으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 3) 교육방법

#### (1) 청음 훈련을 통한 소리 탐색 단계

- 주위 환경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소리를 통해 소리를 탐색하고, 의도적으로 조직된 소리들(장단, 겹 흐름결 등)로 점차 탐색을 확대한다.
- 소리가 나는 물체나 성대, 악기를 이용하여 음색과 음질을 탐색한다.
- 여러 물체나 악기로 함께 소리를 내면서 단순한 형식의 음악을 만든다. 시작과 끝을 대조적인 느낌이 나도록 하고, 긴 소리와 짧은 소리를 자유롭게 엮어 본다.
- 물체나 악기의 성질별로 가족을 꾸미고, 같은 종류의 물체나 악기들을 이용하여 좀더 발전된 음악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 여러 가지 소리를 만들어 내어 본다.

#### (2) 인체 리듬을 통한 장단 익히기 단계

##### • 1수준 : 통한 장단 익히기

① J. (하나) J. (두울) J. (세엣) J. (네엣)의 언어 리듬으로 12/8 박자의 개념을 이해 시킨다.

② J. J. J J J J에 말놀이 장단을 붙여보도록 한다.

덩 덩 덩 덕쿵 덕  
땅 도 땅도 내 땅이 다

③ J. J. J J J J의 리듬에 구음을 붙여 박자의 길이를 이해시킨다.

④ 교사, 아동간 장단 구음, 말놀이 장단을 문답 창한다.

교사 : 덩 덩 덩 덕 쿵 덕  
아동 : 덩 덩 덩 덕 쿵 덕

##### • 2수준 : 손뼉치기를 통한 장단 익히기

① 구음에 맞춰 무릎장단을 치며 익히도록 한다.

J. J. J J J J  
덩 덩 덩 덕 쿵 덕  
(양손) (양손) (양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② 양손과 무릎으로 구음하며 자진모리 장단을 쳐보게 한다.

③ 발장단으로 자진모리 장단을 쳐보게 한다.

##### • 3수준 : 발구르기를 통한 장단 익히기

① 구음에 맞춰 발을 구르며 장단을 익히도록 한다.

J. J. J  
덩 덕 쿵  
(양발) (오른발) (왼발)

② 자진모리 장단에 맞추어 발구르기를 한다.

J. J. J J J J  
덩 덩 덩 덕 쿵 덕  
(양발) (양발) (양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 • 4수준 : 언어 · 신체 리듬을 연합한 장단 익히기

① 구음에 맞춰 무릎장단을 치며 익히도록 한다.

J. J. J J J J  
덩 덩 덩 덕 쿵 덕  
(양손) (양손) (양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 ② 양손과 무릎으로 구음하며 자진모리 장단을 쳐보게 한다.
- ③ 발장단으로 자진모리 장단을 쳐보게 한다.
- ④ 손뼉치기와 발구르기를 함께 하며 자진모리를 표현한다.

(3) 사물악기를 통한 악기 연주 단계

• 악기 연주를 통한 지도 방법

- ① 구음을 듣고 장구 장단을 치도록 한다.
- ② 다른 악기로 장구 장단을 치도록 한다.

• 통합적인 지도 방법

- ① 구음을 듣고 손 · 무릎장단을 치도록 한다.
- ② 구음을 하며 장단을 치도록 한다.
- ③ 장구와 전통 리듬 악기를 이용하여 장단을 치도록 한다.
- ④ 변형 장단을 만들어 표현하도록 한다.

4) 평가

청음중심 단계적 지도법에 의한 유아국악장단 수업 모형의 평가는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평가, 수업에 대한 유아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한 평가로 이루어진다.

첫째, 청음중심 단계적 지도법에 의한 수업 모형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PMMA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한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게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실시한 후 t 검정을 하여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었는지를 밝힌다. 또한 유아국악장단 수업이 실험집단 유아의 성별에 따른 리듬감 향상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기 위해, 실험집단 남아와 여아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점수의 차이를 t 검정하여 밝힌다.

둘째, 국악장단교육에 대한 유아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활동과정을 비디오 카메라로 녹화하여 유아의 반응을 평가한다. 평가의 기준

은 유아의 국악 장단에 대한 이해, 장단 및 악기 다루기 습득 정도, 국악에 대한 태도 변화이다. 평가방법은 프로그램을 진행한 연구자와 보조 연구자 1인이 매 수업 후 녹화 내용을 기록하고 유아의 질문 및 반응을 분석한다.

## 2. 청음 중심 단계적 지도법에 의한 국악장단교육의 효과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MMA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검사 중 리듬 검사만을 실시하였으며, 각 문항당 1점씩 부여하여 리듬 적성 점수를 계산하였다. 다음에서 청음중심 단계적 지도법이 효과가 있었는지, 성차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청음중심 단계적 지도법에 의한 유아국악장단 수업 모형의 효과

청음중심 단계적 지도법에 의한 유아국악장단 교육이 효과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간 사후 검사의 점수를 비교하였다. 위의 결과가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표 3〉 집단 간 유아국악장단 수업의 효과

영역	집단 간 사후검사	N	M	SD	t	p
강약	실험집단	32	3.6988	0.1768	3.163	0.002
	비교집단	32	3.6875	0.4709		
리듬(움길이)	실험집단	32	3.0000	0.7184	4.605	0.000
	비교집단	32	2.1875	0.6927		
총점	실험집단	32	6.9688	0.7822	5.166	0.000
	비교집단	32	5.8750	0.9070		

\*p<.05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실험 집단에서는 리듬감 향상 수준에서 p값이 0.00(p<.05)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리듬감의 세부 영역인 강약과 리듬(음길이)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강약의 p값이 0.002(p<.05), 음길이의 p값이 0.000 (p<.05)으로 강약, 음길이 점수 역시 상승되었다.

2) 청음중심 단계적 지도법이 성차에 미치는 영향

실험집단의 남아와 여아가 리듬감에서 차이가 있는지 사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p값이 0.027(p<.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차를 보였다. 여아의 리듬 점수를 강약과 리듬(음길이) 점수로 나누어 살펴볼 때, p값이 0.002(p<.05)로 리듬감의 세부 영역 중 강약 점수에서 성차를 보였다. 청음중심 단계적 지도법을 실시한 결과 남아와 여아의 리듬감 향상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다.

<표 4> 남아에게 미친 유아국악장단 수업의 효과

영역	남아의 리듬감	N	M	SD	t	p
강약	사전검사	16	2.9375	0.7719	-5.477	0.000
	사후검사	16	3.9375	0.2500		
리듬(음길이)	사전검사	16	2.0625	0.4425	-3.478	0.003
	사후검사	16	2.6875	0.7042		
총점	사전검사	16	5.0000	0.9661	-7.344	0.000
	사후검사	16	6.6250	0.8062		

\*p<.05

남아의 사전, 사후 리듬감 점수를 비교한 결과, 사전에 비해 사후의 평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p 값이 0.000(p<.0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리듬감의 세부 영역을 살펴 볼 때

강약과 리듬(음길이) 모두에 대한 검사 결과 사후의 평균이 사전의 평균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여, 국악장단 수업이 남아의 리듬감 향상에 영향을 미쳤다.

<표 5> 여아에게 미친 유아국악장단 수업의 효과

영역	여아의 리듬감	N	M	SD	t	p
강약	사전검사	16	3.6875	0.4787	-2.611	0.020
	사후검사	16	4.0000	0.0000		
리듬(음길이)	사전검사	16	2.0625	0.6801	-7.319	0.000
	사후검사	16	3.3125	0.6021		
총점	사전검사	16	5.7500	0.8563	-6.484	0.000
	사후검사	16	7.3125	0.6021		

\*p<.05

실험집단 여아의 사전, 사후검사 점수를 비교한 결과, 사전에 비해 사후의 평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p 값이 0.000(p<.0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리듬감의 세부 영역을 살펴 볼 때 강약과 리듬(음길이) 모두에 대한 검사 결과 사후의 평균이 사전의 평균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6> 유아국악장단 수업이 성차에 미친 영향

영역	사전/사후 리듬감점수	N	M	SD	t	p
강약	남	16	1.0000	0.7303	3.149	0.004
	여	16	0.3125	0.4787		
리듬(음길이)	남	16	0.6250	0.71880	-2.521	0.017
	여	16	1.2500	0.68313		
총점	남	16	1.6250	0.88506	0.191	0.850
	여	16	1.5625	0.96393		

\*p<.05

실험집단 유아를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실험 전후 효과 차이를 비교한 결과, 전체 총점으로는 p 값이 0.85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국악장단 수업은 남아, 여아 모두에게 효과가 있으며, 성별에 따른 효과의 차이는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리듬감의 세부 영역으로 살펴볼 때 강약의 경우 남아가 여아에 비해 보다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p 값이 0.004( $p < .05$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리듬(음길이)의 경우 여아가 남아에 비해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 3. 청음 중심 단계적 지도법에 의한 유아의 반응 분석

청음 훈련을 통한 소리 탐색 단계에서 유아들은 소리와 소음의 구별하기, 소리의 특성 이해하기, 소리 표상하기의 단계를 거쳤다. 유아들은 여러 가지 사물을 모아 두드려 보는 과정을 통해 일정한 규칙성을 나타내는 것이 리듬이며, 소리를 내는 물건의 재질, 가하는 힘에 따라 소리가 달라짐을 인식할 수 있었다. 또한 국악기를 탐색하고 표상 하는 과정을 통해 팽과리와 징의 소리는 연속된 선으로 길게 표현하는 반면, 장구나 북은 동그라미나 세모와 같은 일정한 패턴으로 표현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유아들은 악기의 재료에 따라 소리의 진폭 및 음색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인체 리듬을 통한 장단 익히기 단계에서 유아들은 몸으로 낼 수 있는 소리를 이용하여 장단을 익혀갔다. 목소리를 사용한 구음 익히기, 손뼉을 이용한 무릎치기, 발구르기를 이용한 발장단 익히기의 단계를 거쳤다. 구음을 통한

장단 익히기에서 유아들은 장단의 강박과 약박을 음의 길이보다 먼저 인식하였다. 또한 손장단, 발장단에서도 ‘덩’과 ‘쿵’ 표현을 계속 혼동스러워 하였으나 소리를 계속 들어보고 신체로 소리를 내보는 과정을 통해 소리의 크기를 변별하게 되었다. 유아들은 인체리듬을 이용하여 세마치, 굿거리, 자진모리 기본 장단을 습득할 수 있었으며, 기본 장단의 변형도 연습할 수 있었다.

전통악기를 통한 악기 연주하기 단계에서 유아들의 장단 습득의 시기에서는 개인차가 있었으나 ‘자진모리’, ‘세마치’, ‘굿거리’ 장단을 습득할 수 있었다. 악기 연주 초기에는 ‘덩’과 ‘쿵’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구음으로는 ‘덩’을 말하면서 ‘쿵’을 치는 모습이 많았다. ‘덩’과 ‘쿵’의 소리를 민감하게 변별하지 못하는 결과였고, 악기 연주에 있어 초기에는 힘의 조절이 어려워 강박인 ‘덩’과 ‘쿵’을 민감하게 변별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졌다. 악기 연주 단계에서도 인체 리듬 단계와 마찬가지로 유아들은 ‘강박과 약박’을 먼저 인지하고 ‘음길이’를 인지하는 것이 관찰되었으며 3박과 4박을 구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체 리듬 단계에서 가능했던 ‘덩 덕 쿵 덕’을 연결하여 연주하기는 악기 연주 단계에서는 어려움을 보였다. 악기를 이용한 장단 익히기는 ‘덩’과 ‘쿵’, ‘덕’으로 이루어진 기본 장단만 가능하였는데, 이는 인체 리듬에 비해 악기 연주에서는 도구의 조작이 연습되어야 하기 때문으로 보여졌다. 따라서 유아 단계의 장단 지도는 기본 장단이 주가 되어야 하고, 악기 연주를 위한 주법 익히기에서는 발달이 고려되어야 한다.

사물악기를 통한 즉흥표현 단계에서 유아들은 교사가 들려주는 기본 장단을 쉽게 듣고 연주할 수 있었으며 박자에 맞게 변형하여 연주할 수

있었다. 유아들은 박자를 쉽게 받아들이고 표현할 수 있었는데, 이 단계에서도 역시 ‘덩’과 ‘쿵’ ‘덕’의 기본 장단으로 구성하였다. 즉흥 표현 단

계에서도 유아 단계의 장단 교육은 기본 장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 IV. 결론 및 제언

현재 유아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악 교육을 위한 수업 모형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국악 기초 이론으로부터 현장 적용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유아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연구들도 드물다. 이로 인해 국악 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제적인 교육에서는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악 교육의 활성화와 유아 음악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청음중심 단계적 지도법에 의한 유아 국악장단 수업 모형을 제시하고 그 효과를 리듬감 향상의 측면에서 검증하였다. 본 장에서는 연구 문제에 따른 결론 및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수업 모형은 Tyler의 수업 모형 구성 원리에 따라 개발되었다.

본 수업 모형은 국악교육 현황에 대한 선행 연구를 통해 요구도 사정을 하였으며, S부속 유치원 만5세 유아 32명을 대상으로 수업 모형을 적용하였다.

수업 모형의 목적은 국악 장단을 통해 우리 음악의 특징 및 구조를 이해하며, 장단을 통한 기본적인 연주 기술을 습득하며, 국악을 친숙하게 여기고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 하는데 두었다.

교육 내용의 선정은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의 원리에 의해 세마치, 굿거리, 자진모리 장단의 순으로 지도 순서를 정하였으며, 가창, 기악, 창작 등의 표현 활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

지는 가운데 유아의 전인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교육 내용을 구성하였다. 교육 내용 조직은 유아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소리 탐색, 인체 리듬을 통한 장단 익히기, 악기연주, 즉흥표현의 단계로 교육 내용을 조직하였다.

수업 모형의 효과는 집단 간 PMMA 검사의 사전, 사후 실시를 통하여 본 수업 모형이 유아의 리듬감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수업에 대한 유아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비디오 녹화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청음중심 단계적 지도법에 의한 유아 국악장단 수업 모형은 유아의 리듬감 향상 측면에서 효과가 있었다.

유아 국악장단 교육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집단간 PMMA 사후검사의 평균점을 구한 후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p값이 0.00( $p < .05$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청음중심 단계적 지도법이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실험집단, 비교집단 모두 리듬의 합산점에서는 여아가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러나 실험집단의 유아를 대상으로 사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실험 전에는 두 집단이 리듬감에서 차이가 있는 비 동질 집단이었으나, 실험 후 두 집단은 동질 집단으로 나타났다. 또한 리듬감의 세부 요소를 살펴볼 때 남아의 경우 강약에서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여아의 경우 리듬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강약 점수보다는 리듬(음길이) 점수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상에서 논의한 결과들을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음 중심 단계적 지도법에 의한 유아 국악장단 수업 모형은 유아의 리듬감 향상에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국악교육을 실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둘째, 국악 장단교육에서 성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악장단 수업 모형은 여아와 남아 모두의 리듬감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특히 남아의 리듬감 향상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즉, 실험 전에는 비 동질집단이었던 실험집단의 남아와 여아가 실험 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차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실험 후 남아는 강약 면에서, 여아는 리듬 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이 있었다. 따라서 음악교육에서 성차를 고려한 리듬 변별하기, 리듬 연주하기 등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기에 리듬감 교육을 하는 것이 남아와 여아의 음악적 성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겠다.

셋째, 유아 국악장단 교육 방법은 청음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소리탐색, 인체리듬, 악기연주, 즉흥표현을 통해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유아들이 국악 장단을 익히는데 있어 청음을 중심으로 음악의 요소를 인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먼저 유아들은 강세를 인식한 후 음 길이를 인식하기 때문에. 지도 방법에 있어 기본장단을 중심으로 지도해야 한다. 인체리듬으로 익힐 수 있는 장단을 악기를 통해 연주할 때는 어려움을 보였다. 따라서 국악교육에 있어 지도 순서를 연계성 있게 정하며 변형 장단보다는 기본 장단을 중심으로 지도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추후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전통의 지도법에 대한 연구 및

적용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악장단 교육의 방법으로 서양의 음악 이론가인 Orff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우리의 전통 청음 지도법인 '구전심수' 방법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 자연스럽게 관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도입하기에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 우리 음악을 가르칠 때 서양의 지도 방법을 쓰기보다 전통의 지도 방법을 연구,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전통의 음악교육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유아 국악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제시하는 수업 모형 개발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유아 국악 교육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국악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한 현황과 유아 국악교육의 문제점 및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현황을 살펴보는 연구이다. 또한 문헌 고찰에 의한 적용 방법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인 실정이다. 따라서 국악교육 활성화를 위한 수업 모형 개발 및 지도법들을 적용해 보는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셋째, 국악교육에 대한 대부분의 논문들이 음악교육 전공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음악 이론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학령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주로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아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적용해 보기에는 실제와 괴리된 면이 있다. 유아 교육 전공자의 관점에서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국악장단 지도법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는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보다 체계적인 국악장단 교육이 유치원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 대상이 되는 만 3세, 만 4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국악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서울의 1개 유치원 만 5세 유아 32명을 대상으로 적용하였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집단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는 청음중심 단계적 지도법에 의한 국악장단 교육을 리듬감 향상의 측면

에서 연구하였다. 음악의 제요소의 측면에서 음악성 발달 및 효과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아동이 국악을 이해하고 생활에서 향유하는 과정을 아동의 입장에서 알아보는 질적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경희(1999). 유치원 교사의 전통음악 인식 및 활용에 대한 조사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교육부(1998). *유치원 교육과정 해설*. 서울 : 교육부.
- 교육부(2000). *유아를 위한 전통문화교육활동 지도자료* 교육부.
- 김미영(1996). 초등학교 아동을 위한 전통음악장단 프로그램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상철(1992). 유아음악교육에서의 신체표현 사용과 음악성 향상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수연(1994). 유치원 국악교육 실태와 교육방안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영신(1996). 유아음악교육의 지도법에 관한 연구-코다이 음악교육 방법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영희(1998). 칼 오르프와 줄탄 코다이의 교육 방법에 의한 유아 음악교육에의 적용.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인옥(1997). 즉흥적인 음악적 표현력 신장을 위한 단계별 지도 방안 탐색.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혜경(1997). *유치원 음악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창지사.
- 안신자(1996). Carl Orff 음악이 유아의 음악 향상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안재신(1996). *유아음악교육*. 서울 : 교육과학사.
- 유덕희(1983). *음악교육론*. 서울 : 개문사.
- 이경언(1994). 우리나라 전통음악의 지도방법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인수(1994). *국악학습지도법*. 국악연구.
- 임선영(1996). 유아음악교육에서의 리듬교육의 중요성 및 지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수연(1995). 현행 국악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신화(1995). 유아 국악교육의 현황에 관한 조사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미라(1985). 유치원 교육활동에서의 한국 전래동요 활용을 위한 기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성자(1984). 유치원 및 국민학교 저학년의 국악교육을 위한 실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성보(1994). 국악교육을 위한 교원 양성과 재교육. *교육월보*.
- 한국가이던스(1994). *유아음악적성검사*. 서울 : 정민사.
- Tyler(1969). *Basic Principles of Curriculum and Learn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